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뮤지컬 분야 심사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사분과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뮤지컬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예심) 2025년 4월 15일(화) ~ 5월 19일(월) / 온라인 심사
 - (본심) 2025년 5월 22일(목) 14:00 ~ 17: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사위원명(가나다순) : 김혜성, 박현숙, 박혜림, 손신형

2025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창작뮤지컬 분야)는 공연 예술 창작 활성화와 무대화가 가능한 우수 창작뮤지컬 발굴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68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기발표 또는 기공개된 작품, 필수서류 요건 미 충족 등 결격 사유로 확인된 10건을 제외한 58건이 예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11건이 본심 대상으로 올라 최종적으로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는 작품성 80%, 무대화 가능성 20%의 비율로 진행되었으며, 서사 구조의 완결성, 인물 구성의 설득력, 대사과 장면의 유기성, 음악적 표현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무대화 가능성은 공연 실현력과 연출적 상상력, 관객과의 소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올해 접수 작품은 고전의 재해석,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극장을 지향하는 대본의 비중이 높았으나, 뮤지컬 형식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인물 간 기능적 균형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편, 여성 2~3인 구성을 중심으로 한 소극장 작품들도 강세를 보였으며, 감정선의 섬세한 묘사나 밀도 있는 장면 전개가 돋보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서사구조와 정서적 접근이 반복되며 다소 익숙한 흐름을 보인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음악적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고른 실력 향상이 눈에 띄었고, 서사와 음악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몇몇 작품들은 음악 자체의 완성도는 높았으나 극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음악의 배치와 기능이 단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완성도 높은 대본 외에도 무대화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기획력과 예술적 비전, 실현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고루 갖춘 점이 강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상업성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제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결여한 접근은 창작 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준비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한국 뮤지컬 창작 생태계의 저력과 다양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무대화를 향한 창작자들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지원자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창작 여정을 위한 귀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뮤지컬 분야 심사위원 일동